

주간농업 농촌동향 **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확정·발표**

2011.09.26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확정·발표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추진경과 및 개요

-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우리술을 고급화·세계화 하고자, 우리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 마련
 - 「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 발표: 기획재정부,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, 2009
 -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: 2010
- 금번에 확정·발표된 「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」은 '09년에 마련한 「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과 '10년에 제정된 「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추진전력과 세부과제로 체계화한 것임.

○ 주요내용

-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개선과 기술보급
- 양조용 원료 품종개발·보급
-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 및 선진국형 품질관리시스템 도입
- 전통주의 세계화 및 과학화
- 원료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
- 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

○ 설정방향(향후 5개년: '11~'15년)

- 전통주 매출액 증가 : ('10) 0.8조원 → ('15) 1.2조원
- 술 수출액 증가 : ('10) 3.1억달러 → ('15) 6억달러
- 국산 농산물 사용량 확대 : ('10) 10만톤 → ('15) 20만톤

- 세계적인 명주 개발·유통

- 이를 위해 3가지 분야에 25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을 위해 '11년부터 '15년까지 총 1,125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
 - 연도별 투융자액 : ('11) 156억원 → ('12) 185 → ('13) 223 → ('14) 232 → ('15) 239

□ 주요 정책과제

1) 술 산업 진흥 기반 조성

- 술 제조업체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한편, 술 원료 구매 자금과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
 - ※ 지원(융자) 규모 : ('11) 60억원 → ('15) 150억원
- 현장 애로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, '10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컨설팅을 '15년에는 40개 업체로 확대
- 술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벼와 과일에 대하여는 양조에 적합한 품종 개발 연구를 확대하고, 이를 실용화하여 보급을 확대
 - ※ 내 재해성 고품질 양조벼 개발 : ('10) 2개 품종 → ('15) 4개 품종
 - ※ 고기능성 포도주용 포도·머루 개발 : ('10) 2개 품종 → ('15) 5개 품종
- 술의 제조, 연구 등 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·교육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, 국가 양조자격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술 전문인력 양성
 - ※ 전문인력양성기관 : ('11) 2개 → ('15) 5개, 교육훈련기관 : ('11) 7개 → ('15) 20개

2)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

- 우리 전통주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통주 홍보관 및 전문판매점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고, 농수산물유통공사(aT)의 사이버거래 입점업체 수 확대 등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계획
 - ※ 전통주 홍보관 및 전문판매점 : ('11) 3개소 → ('15) 10개소

※ aT 사이버거래 입점 전통주 업체 수 : ('10) 40개소 → ('15) 150개소

- '10년부터 농식품부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**술 품질평화**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술의 **품질향상 및 명품주를 선발·육성**하는 노력 강화
- '11년부터 시행되는 **술 품질인증제를 확대**하여 시행하는 한편, 품질 관리제를 향후 우리 술 특성과 산업환경에 맞도록 등급화 하여 관리하는 등 품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
 - ※ 술 품질인증제 : ('11) 4개 주종 → ('12) 7개 주종
-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다 단절된 **우수한 전통주를 복원**하여 이를 산업 화해 나가는 한편, 양조 전문서 제작 및 술 R&D 강화. 외국의 유명한 숙성 명주와 같이 우리 술의 **숙성 명주 개발 지원**을 위해 '12년부터 숙성방법과 숙성기간별 주질을 분석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등 연구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
 - ※ 전통주 복원 계획(누계) : ('10) 7개 → ('15) 22개
 - ※ 양조전문서 제작 : ('11) 발효주 분야 2종 및 ('12) 증류주 분야 2종

3) 우리 술과 농업·안식과의 동반성장

- 쌀 등 **술 제조원료 계약재배 확대**를 통한 술 산업과 우리 농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벼 신품종을 대상으로 양조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및 술 제조업체에 알리는 한편, 벼 계약재배단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
 - ※ '10년 23개 벼 신품종을 대상으로 양조적성 평가를 실시, 다수확품종 3종 및 고품질 4종을 적합품종으로 선정(국립식량과학원)
 - ※ 벼 계약재배단지 : ('11) 3곳 → ('13) 15곳 → ('15) 30곳
- 술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**전통주 클러스터 특화사업**을 확대, 그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특산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, 제조원료에 대한 **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제도**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 유도
 - ※ ('11) 3개소(김포 인삼쌀맥주, 전주 전통모주, 포천 막걸리) → ('15년) 7개소
 - ※ 지리적표시제 : ('10년까지) 2개 품목 등록 → ('15) 10개

-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단 등의 예방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사업 추진. 방송매체 등과 연계하여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전개 및 이를 교육자재로 제작하여 교육기관 등에 보급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.
 - ※ 전국민을 대상으로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추진
 - ※ 방송 내용을 DVD 등으로 제작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 등에 교육자료로 보급

부록: 우리나라 술 산업 일반현황 및 전통주 산업 동향 부록 참고.

부록 1. 우리나라 술 산업 일반연망

□ (시장규모) '09년 기준 우리나라 술시장 규모는 7.8조원 수준(출고액 기준)

※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자가 기준으로는 약 25조원 수준(추정)

○ 맥주, 소주, 위스키가 전체 술시장의 87% 차지, 수입주는 8.4% 점유

<국내 술시장 현황('09년 기준)>

구분	전체	맥주	회석식소주	위스키	과실주	탁·약주	기타
금액(억원)	77,533	36,029	26,900	4,506	2,873	3,689	3,536
(비중, %)	(100)	(46.5)	(34.7)	(5.8)	(3.7)	(4.7)	(4.6)
(*수입주비중, %)	(8.4)	(1.3)	(-)	(54.9)	(50.0)	(-)	(58.7)

자료: 국세통계연보 및 농수산물무역정보.

□ (제조업체) '09년 면허 기준 술 제조업체는 1,504개

○ 탁·약주가 952개로 전체의 63.3%를 차지하고, 다음으로는 과실주·리큐르·맥주 순

<국내 술 제조업체 수 현황>

단위: 개소, %

구분	합계	탁주 (막걸리)	약주	청주	맥주	과실주	증류식 소주	회석식 소주	위스키	브랜드	일반 증류주	리큐르	기타 주류	주정
면허수	1,504	768	184	6	83	167	35	17	10	5	55	89	74	11
비율	100.0	51.1	12.2	0.4	5.5	11.1	2.3	1.1	0.7	0.3	3.7	5.9	4.9	0.7

□ (수출입) '10년 수입은 6.0억\$로 수출(3.1억\$)의 2배 수준, '02년 2.6배보다는 격차 축소

○ 수입은 위스키(38%), 포도주(19%)가 큰 비중, 최근 포도주 수입 집중

○ 수출은 소주(39%), 맥주(15%)가 큰 비중, 최근 막걸리 수출 급증세

※ 막걸리수출액 : ('08) 442만불 → ('09) 628(42%증) → ('10) 1,910(204%증) → ('11) 5,000(전망)

□ 주요 주종별 현황

○ (막걸리) 최근 웰빙트렌드 확산 및 기능적 우수성 홍보와 저도주에 대한 소비자 선호로 '09년 이후 국내외 시장 큰폭의 성장세

※ 출고량/시장액 : ('08) 176천kl/3,000억원 → ('09) 261/4,400 → ('10) 412/7,100(추정)

- 업체수는 많으나 상위 5개업체가 시장의 약 60%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규모(연간 매출 1억원 미만)이 약 66%

○ (맥주) 술 산업 중 가장 큰 규모(약 47% 차지)로 2개사 복점체제

- 원료인 맥아, 홉 등이 대부분 수입되고 국산원료는 일부(약 25%) 사용

○ (회석식소주) 10개의 제조사중 상위 6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90%를 차지

- 대부분 수입원료가 사용되나, 주류 중 수출 1위 품목('10년 123백만불)

○ (위스키) 완제품 형태의 수입품이 시장의 과반을 점유, 국산 위스키는 원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병입하여 판매하는 형태

※ 국내업체 : 디아지오(1위), 페리노니카(2위), (주)롯데(3위)가 90% 이상 차지

○ (과실주) '07년까지 복분자주와 포도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, 수입 와인 및 소주의 저도화 등에 따른 시장잠식으로 감소세

※ 출고량 : ('05) 20천kl → ('06) 23 → ('07) 29 → ('08) 27 → ('09) 23

○ (약주·청주) 국내 타주류 성장 및 수입 주류 증가, 명절 등 특정시기 판매 집중 등으로 인한 시장 다각화 미흡 등에 따라 '06년 이후 감소세

※ 출고량 : ('05) 76kl → ('06) 63 → ('07) 52 → ('08) 45 → ('09) 41

○ (기타 증류주) 대체 품목인 위스키, 브랜드 등 수입주류 증가 및 장기숙성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노력 미흡 등으로 시장 협소

부록 2. 전통주 산업 동향

- (법률상 전통주 개념) 전통주는 「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」 및 「주세법」 상 민속주(무형문화재, 식품명인), 지역특산주(농민주)를 의미

	요건	추천기관	면허기관
민속주	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·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	농식품부장관(시·도지사 위임) 문화재청장	국세청(세무서)
	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	농식품부장관(시·도지사 위임)	
지역특산주(농민주)	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및 그 인접 시·군·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농식품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	농식품부장관(시·도지사 위임)	

주: 민속주(예) : 문배주, 이강주, 안동소주, 금산 인삼주, 계룡 백일주, 가야 곡왕주
 지역특산주(예) : 고창 북분자주, 지리산 머루주, 영월 디덕주, 평양 매실주, 진도 홍주
 ※ 전통주는 주세경감(50%), 시설기준 완화, 제조자 직접판매 허용, 통신판매 허용 등의 혜택

- 법률상 개념의 전통주 시장규모는 '09년 출고액 기준 약 1,000억원으로 전체 술 시장의 1.3%를 차지
- 전통주 업체 평균 매출액은 '09년 250백만원, 종업원수는 4명 수준으로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64%로 대부분 영세
- ※ 일반적 개념의 전통주(희석식소주, 맥주, 위스키, 브랜디를 제외한 우리 술) 시장규모는 '10년 기준 약 8,000억원으로 추정
- 법률상 개념의 전통주 제조업체는 면허기준 364개로 전체 주류업체(1,504개)의 약 24%를 차지

<전통주 제조면허 현황('09년 기준)>

구분	합계	탁주(막걸리)	약주	청주	과실주	증류식소주	브랜드	일 반 증류주	리큐르	기타 주류
합계	364	22	64	1	135	18	2	36	63	23
민속주	46	2	21	0	1	7	0	6	6	3
지역특산주(농민주)	318	20	43	1	134	11	2	30	57	20